

2020년 7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이재식(044-201-2151), 사무관 류성훈(2157) / 제공일: 7월 10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안심식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 및 지원 강화 예정 [매일경제 7.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농식품부는 전국의 모든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지자체에서는 우선 연내 지정 가능한 안심식당 개수가 2만 2천개로 파악하였습니다.
- 희망하는 모든 식당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,
- 안심식당의 전국 확산과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확보한 추경을 활용해 안심식당 홍보 및 덜어먹는 도구 보급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.
- 7월 10일자 매일경제 A23면 <안심식당 달랑 2만개?... 발끈한 외식업체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☐ 안심식당 정부 선정 방침에 외식업계 반발 커, 효과 의문

- 외식업체들은 취지는 좋으나 홍보가 부족해 고객은 물론 식당들조차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

- 2만개로 개수를 한정된 것을 두고 불만, 기준을 갖추고도 안심 식당에 선정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 가능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코로나19 계기, 전염병에 취약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월 ‘식사 문화 개선 방안’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개선이 시급한 3개 주요 과제*를 발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안심식당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위 과제 개선은 필수로 하되,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.

* ① 음식 덜어먹기, ② 위생적인 수저관리,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

- 농식품부는 전국의 모든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지자체를 통해 우선 연내 지정 가능한 안심식당 개수가 2만 2천 개로 파악하였습니다.

- 앞으로도 희망하는 모든 식당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또한, 농식품부는 안심식당의 전국 확산과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확보한 추경을 활용해 안심식당을 홍보하고 덜어먹는 도구 등을 보급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